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7)

할렐루야!

크로아티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린이 예배

크로아티아에 온 후로 계속해서 어린이를 향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도 없이 방치되는 듯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어린이들의 마음에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이 일에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는 꾸준한 평일 청소년 모임을 통해 현지 교회의 인정을 받게 하였고, 공립학교 과목의 일부인 종교수업을 맡아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제안을 교회로부터 받게 하셨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하던 종교수업 시간을 찬양과 기도, 말씀선포 및 성경공부, 그리고 교제 등으로 채우고, 모임 시간도 평일에서 주일로 바꾸어 청소년들과 주일예배를 드리는 감격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남았습니다.

방학이 되면 종교수업도 끝이 나기에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자니 교역자도 없고, 훈련받은 교사도 없습니다. 부모 대부분은 방학 때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긴 여름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교회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 어린이 예배를 드릴 테니 주일에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오라고 성도들께 광고를 해주십시오.”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다

자신 있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 지 막막했습니다. 언어도 문제였습니다. 청소년들과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는데 어린이들은 영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현지어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에서 율동하는 빛나, 마라, 재민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말씀과 예배 전체 진행을, 오주령 선교사는 성경 구절 카드와 간식을, 예나는 그날 주제에 맞는 활동 및 게임을, 그리고 빛나와 재민이는 율동을 맡아 준비하기로 하고, 가정예배 때 시뮬레이션(?) 하며 점검을 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동참해서 준비하는 동안 너무나 기쁘고 드러질 예배가 기대되었습니다.

마침내 첫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본 적 없던 어린이들인지라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하지만 이러한 모든 염려는 ‘예배드림’으로 그냥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머뭇거리며 뭘 해야 할지 모르던 아이들이 찬양에 녹아 지던 모습, 설교시간 질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하여 씩씩하게 답하던 모습,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멀뚱멀뚱하길래 “눈감고, 두 손 모으고”하는 말에 조용히 따라 하며 기도하던 모습, 실수에도 어른들보다 더 관대한 미소로 ‘괜찮아’하며 힘을 실어주던 모습, 그리고, 구석구석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



예배 후 활동 및 간식 시간

저에게는 그날의 모습들이 마치 천국 잔치와 같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꿈꾸며…

지난주 일 년에 한 번 있는 교단 총회에 참석해 보니 크로아티아 교회의 미래가 썩 밝지 않음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재 크로아티아 교회는 세워진 교회의 숫자보다 교회를 섬길 목회자의 숫자가 더 적은 형편입니다. 이보다 더 암울한 것은 목회자를 길러낼 정식 신학교가 부재한 상태인지라 기성 목회자를 이어줄 젊은 목회자를 전혀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크로아티아 교회의 장래 모습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현실 때문이라도 주일학교 사역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도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장성해서도 신앙생활을 지속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의 아이들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워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많지 않음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이미 믿은 우리 어른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주일학교 기반이 전혀 없는 선교지에서는 더욱더 어린이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반반한 예배 공간도, 흔한 시청각 설비도, 훈련받은 교사도 전혀 없는 현재 상황이지만 크로아티아의 다음 세대를 꿈꾸며 주일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가정이 되도록 동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Isuse Volim Te (이쑤세 볼림 떼 /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일예배와 목요기도회 때 현지어로 찬양 인도를 준비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데, 자연스럽게 집에서도 가족들과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 감사하게 됩니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Isuse Volim Te, više od sve drugog, volim Te

Sve što je u meni želi pjevati, Isuse volim Te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현지인 찬양에 오주령 선교사가 울동을 만들었는데, 주일학교 예배 때마다 어린이들이 울동하며 올려드리는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지난 8월,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한동안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셨건만 저는 아버지를 위해 해드린 것이 전혀 없어 가슴에 큰 멍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뇌까지 전이된 암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중에서도 당신은 선교지에 가야 한다고, 다 나서서 선교사가 되시겠다고, 선교지에 쓸 물건을 보냈으니 그리 알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시기 전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준비시 키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병상의 그 시간 동안 사랑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계셨던 아버지,
이 땅에서는 아버지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그리움이 많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 품에 계실 것을 생각하니
그 천국이 더욱 소망 됩니다.

이제는 천국 정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오면 주시려고 과실과 채소를 가꾸고 계실 아버지,
마지막 헤어질 때 저에게 큰 소리로 “울지 말고 기뻐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울음을 멈추고,
마음껏 예수님 사랑하고 전하며 기뻐하면서 살다가 언젠가 그날 천국에서 뵈겠습니다.
그때까지 편히 쉬세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 슬픈 일도 많고 우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천국 소망 중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춤추며,
이 세상 계실 동안 우리 예수님만 마음껏 사랑하고 전하다가
언젠가 영광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뵈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로아티아에서

김두희/주령, 예나, 빛나, 재민 드림

* 기도 제목

1. 현지 주일학교 예배가 지속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놀라운 은혜 부어주옵소서.
2. 어린이들의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장차 크로아티아의 영적 기둥들이 되게 하소서.
3. 주일학교에 필요한 공간 및 교육, 시청각 설비들이 마련되게 하시고, 훈련된 현지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4. 참된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현지 정식 신학교가 세워지게 도와주소서.
5.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 (미국) 선교후원금 보내실 주소

YALA Mission (Attn: DOO HEE KIM)

2717 W. Olympic Blvd., #203

Los Angeles, CA 90006

(Pay to the order에 Y.A.L.A. 라고 쓰시고 메모란에 김두희/주령 선교사 라고 적어주세요)

* (한국) 국민은행: 599701-04-048019 (김두희)
